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춘천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발 행 인 : 장효근
1998년 9월 15일 창간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제 132 호 2009년 11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가는 11월!

높고 맑은 하늘 아래,
초목은 곱게 물들어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1~3)

사진제공 / 김용배 장로(소암교회)

INDEX

2 성경으로 돌아가자!
4 한국교회의 경건훈련을 말한다!
6 이웃과 함께하는 신한 교회(앙의문교회)
10 흡인은 질병이다



9 | 춘천의 고종황제의 궁전인이궁이있었다



13 | 파이이푸르프 - 사랑의 도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김 명 호 목사 (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대표 /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코리아 대표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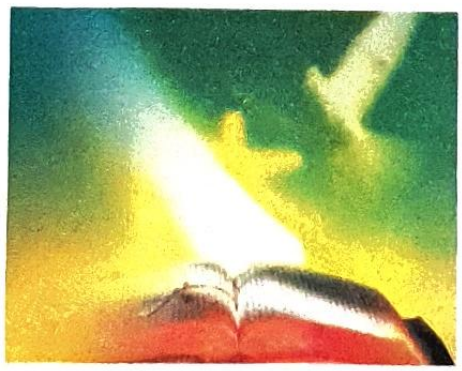
올해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탄생 5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촉구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의미 있는 목소리로 다가온다.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에 더 무게를 두었던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서 영적 민주주의를 천명하며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오늘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인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엇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강요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은혜를 말하면서 본 회퍼가 지적하는 "값싼 은혜"의 함정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을 교리와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변화된 삶과 인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와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이 은혜의 환경을 누리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방송과 인터넷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원한다면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말씀이 사제들에게만 제한되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말씀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이다. 앞으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풍조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정보로만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계속해서 배우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다. 한 가지를 깨닫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무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정보(information)가 아니라 변화(transaformation)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암송하고 있느냐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으로 이어지는 인격적 변화를 자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열매가 없이 오히려 성경을 공부한 것이 교만함과 고지식함으로 나타난다면 그 성경공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구체적인 섬김과 사역으로 열매 맺게 마련이다. 적용이 없는 성경공부는 저질이며 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섬김과 봉사하는 시간도 1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섬김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주차안내를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약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시에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도 중요하다. 한번 시도해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하루라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Ⅲ)]



네팔 (Nepal)

- 인구 : (2008년) 28,757,000
- 수도 : 카트만두(Kathmandu)
- 인종 : 인도-아리안계 79%, 몽골계 · 티베트계 17%, 기타 4%
- 종교 : 힌두교 81%, 불교 11%, 이슬람교 4%
- 공식언어 : 네팔어 90% (힌디어 종카어 사용)

〈최근 소식〉

학생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기독교단체 NBCBS(Nepal Bishwabidhalya Bidharthi Sangati)가 일주일 전에 네팔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30년 동안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힌두와 불교의 배경으로부터 온 학생들을 대하고 이 단체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그들은 전국 캠퍼스에서 약 70개의 성경공부 그룹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가컨퍼런스에 약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계속적인 캠퍼스사역의 부흥과 이들을 통해 네팔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자.

[편집위원 조나단 (Jonathan)]



"500석 규모의 넓은 홀"
기분좋은 만남! 소중한 추억!

웨미리 뷔페

회갑연 고희연 돌/백일
각종모임 단체모임
출장뷔페 결혼식피로연 잔치음식

※돌잔치 각종 서비스 : 돌상차림, 케익, 돌잡이 이벤트, 돌잡이 용품 풍선장식, 원판사진, 압축앨범or액자, 포토테이블, 빔프로젝트 기타등등

평일 점심 상설 뷔페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1:30 ~ 오후 2:00
성인 9,000원 / 7세~초등 3,000원
** 주차권 무료 발급 **



예/약/문/의
☎(033)251-2154
☎(033)251-2158

도시변화를 꿈꾸는 세계 중보 기도자들이 한 자리에

- 국제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



박 인 관 목사 (춘천광염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위원장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 5월에 있었던 휴스턴의 도시 변혁대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도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선교전략은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 사회에 들어가 고군분투하며 각개 전투하는 방법을 탈피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 있는 선교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10/40창을 주장하며 선교에 큰 비전을 준 루이스 부시 목사가 제안한 것으로 브라질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도시들이 놀라운 변화를 이미 체험하고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춘천은 이미 이 도시변혁운동을 '성시화'라는 이름으로 1960년대부터 실시해 왔는데, 이에 루이스 부시 목사가 춘천을 여러 번 오가면서 감동을 받고 우리를 초청하여 김성호, 정재호, 염윤호 목사와 함께 참석하였다. 이때 참석한 미국 목회자들이 부흥을 갈망하던 가운데 우리 춘천성시화에 대한 발표를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그분들 중에 IPC라는 국제 중보기도운동을 이끌고 있는 존 락을 만났는데 9월달에 매우 특별한 기도회 즉, 전세계와 뉴욕을 위한 기도세미나가 국제적으로 모이는데 그때 이 발표를 한 번 더 해줄 수 없는가? 아니 꼭 좀 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본의 아니게 또 참석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춘천성시화 부본부장인 조영춘 목사와 춘천지역을 위한 목회자들의 중보기도를 리드하고 있는 지용찬 목사와 더불어 참석하게 되었다.

9월 8일(화) 저녁, 서로를 소개하고 각자의 고유의상을 입고 국기를 흔들어 인사하며 만찬을 나누는 것으로 기도컨퍼런스는 시작되었고, 11일 금요일 늦은 밤 모든 일정을 마쳤다. 장소는 세계 제일의 금융도시인 뉴욕에서 전체 65개 국가에서 200여명이 모였다. 마지막 날에는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모여 함께 감동적인 기도회를 열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3명과 도시중보기도를 일깨우는 ANI중보기도선교회 대표와 간사 3명, 그리고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중보기도팀 4명, 모두 10명이 참여하였다.

첫날인 9일 수요일 오전에는 그룹별로 모여 중보기도를 각 분야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워샵을 하고, 오후에는 그 문제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다. 둘째날 10일 목요일에는 UN본부 제2회의실에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65개 국가가 각기 자기들의 국기를 들고 입장을 하였고, 30여개 국가의 대사가 자리를 함께하였다. 우리나라 박인국 대사도 참석하여 대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을 환영하고 기도제목을 내놓아 함께 기도하였다. 기도 제목들로는 세계적인 어려운 문제들인 어린이들의 학대, 여성착취와 성을 비롯한 세계의 이슈들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대사들이 함께 토의하고 일을 추진하는 바로 그 평화의 터전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자들이 세계에서 모여 세계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는 충격과 함께 그들과 하나가 되어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였다. 마지막 날인 11일 금요일은 911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째인 날이었는데 이날은 세계 사람들을 격앙케 하고 세계적인 경제전문가 3,000여 명을 몰살시킨 바로 쌍둥이빌딩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였다. 그날은 하늘도 슬펐던지 비바람이 하루 종일 몰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월가를 걸으면서 기도하였고 도시락을 먹은 뒤 오후에는 배를 타고 자유여신상을 돌고 또 뉴욕 전체를 몇 빈이고 돌면서 뉴욕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때 도시변혁의 식구들도 함께 참여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의 믿는 이들이 모여 세계가 하나 되어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특별히 각 나라에서 온 기도자들은 전지 1/2 크기의 종이에 자기들 나라의 문제들과 기도제목을 적어 서로 서로 돌면서 부둥켜안고 아이 어른 흑백의 구분 없이 눈물방울 떨겨 가며 기도하였다. 참으로 천국이 따로 없었다.

이번 모임은 은혜를 끼치기 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우리가 아주 듬뿍 안고 돌아왔다. 우리는 참석하기 전부터 기대와 흥분이 계속 교차되었다. 평소에 중보기도나 세계 기도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으며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이들의 초청을 받아들여 참여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들과 사역들을 발견하였다. 한마디로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오직 기도가 주제였고 기도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아주 자연스러워하였다. 어떤 그룹은 일주일에 이틀을 10-12시간 가량 오직 도시를 위한 기도들을 한다고 하였다. 참으로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웠다. 고작 새벽기도나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철야도 아닌 심야기도 시간에 도매금의 기도를 드린 것이 고작인 우리 교회들의 기도사역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참으로 많았다. 물론 우리 춘천은 수십 년 전부터 기관장, 평신도 중심의 그리고 최근 몇 년은 목회자 중심의 중보기도가 이어져 왔지만 모든 교회마다 목회적인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복적이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한국 교인들의 영적 관심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우는 중보기도가 목회의 내용이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우리 춘천이야말로 말로만의 성시화가 아니라 실제의 모델이 되어야 하겠는데 무엇보다 먼저 우리 춘천 도성을 위한 중보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마다, 직장마다, 성도들마다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www.seeds21.co.kr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 겨울특강 12월 21일 개강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H·P 010-3078-0179



한국교회의 경건훈련을 말한다!

참여자: 엄기홍(춘천온누리교회), 박영주(푸른언덕교회), 손귀연(JDM한국대표), 장소영 (CCC훈련담당) / 진행자: 정재호 사진: 김미경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영성 혹은 영성운동, 영성신학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도들의 영성을 훈련시켜주는 영성훈련원, 영성신학원들과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영성훈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신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와 당혹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연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이 영혼의 호흡으로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영적생활이라는 것은 믿음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를 삶의 터전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영성으로 말하는 대신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딤후 3:1-5, 약 1:26-27). 목회의 현장에서,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사역자로서, 선교사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경건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심혈을 쏟는 주님의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는 희망이 있다.

현재, 캠퍼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신앙훈련들을 소개해 달라.

✲ 손귀연 목사

제가 섬기고 있는 JDM(예수제자운동)에서는 먼저 대학생 신입생이나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 신앙입문 과정(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하나님과 성경, 교회생활 등)을 소그룹에서 공부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1년의 훈련과정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을 마치면 TTS(디모데 훈련학교)훈련을 받게 하는데 이 훈련은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매주 약 3시간씩 기초 신학훈련을 포함한 **리더십, 바른 신앙 개념(바른 예배, 영성, 헌금, 주일성수 등), 소그룹 활동, 이단, 개인 성경공부, 정기적인 Q.T 생활, 공동체 생활 등을 훈련**한다. 대학 4학년이 되면 사회와 직장 속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예비 직장인 훈련과정이 별도로 있다. 대학 졸업 이후에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KDTI(한국 제자훈련원)과정이 있는데 매년 3월 첫 주부터 12월 첫 주까지 9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장·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IMTI(국제 선교훈련원)훈련도 있다. 2월과 8월, 3주간의 훈련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

✲ 엄기홍 목사

손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신앙훈련들은 다른 선교단체에서도 매우 유사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는 훈련과정이다. 교회의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이다. 새신자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신도 지도자와 직분자들을 위한 훈련,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훈련과 기도, 전도 등을 주제로 하는 훈련들이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런데 교회의 신앙훈련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다. 선교단체에서 일하다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보니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교회에서는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너무 어린아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신앙으로 훈련시켜 하나님나라 일군으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교회에서 청년들을 동역자로 여겨야 한다. **청년들을 신앙훈련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을 영적장군으로 여겨주고 격려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소망은 자라나는 다음세대인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신앙훈련을 솔직하게 평가해 본다면?

✲ 박영주 목사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윌로우크릭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의 충격적인 선언이 있었다. 윌로우크릭교회는 32년간 사역하면서 수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교회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하고, 120명을 1:1로 면담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3%미만).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윌로우크릭교회가 수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목회는 실패였다고 고백하였다. 윌로우크릭교회를 모델로 삼고, 빌 하이벨스 목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온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교회성장 방향을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 결국 현대교회는 마케팅에는 성공했는지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제자도에는 철저히 실패한 것이다. **교회의 대형화와 수적 성장이 곧 부흥이라고 하는 생각은 한국교회가 속히 버려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이다.** 한국교회의 신앙훈련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면적 신앙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엄기홍 목사(춘천온누리교회)


박영주 목사(푸른언덕교회)

✲ 손귀연 목사

최근에 한국교회는 훈련 열병에 걸린 것처럼 교회마다 다양한 훈련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자훈련 과정이나 알파코스, G12, 영성훈련 등은 **그 훈련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도나 가치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2004년 말레이시아의 한 외국인 교회에서 알파코스에 대해 처음 들었는데 그때 알파코스를 하게 되는 배경, 가치, 과정들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보고 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한국교회가 알파코스를 진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봤는데, 형식은 그럴듯하게 갖추었지만 자꾸 본질에서 떠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제자훈련 과정이든, 셀모임이든, G12나 알파코스를 어떤 일이나 직분을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가치나 내용에 충실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훈련을 교회성장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여 훈련을 남발하는 현상**이다. G12가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G12에 올인하고, 알파가 좋다고 하니까 알파에 쏠리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 성도들도 피곤해지고 훈련공해 현상이 나타나 꼭 필요한 신앙훈련, 경건훈련도 어려워진다.

✲ 장소영 간사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로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다. 훈련프로그램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것인가? 그런데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킨 후에 항상 내리는 결론이 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을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영적변화는 매우 적다. 오늘날은 프로그램 홍수의 시대와도 같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청년 대학생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은혜를 사모하며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양성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기본을 외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엄기홍 목사

얼마 전 총회 공과교재 주제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Are you the christian?)이었다. 이 물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기독교가 세상의 복만을 바라보게 되면 무당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한미준(한국교회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 헌신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일 헌신도가 떨어지는 교회가 대형교회였다. 대형교회

성도들의 개인별 주일성수, 십일조헌신은 작은 교회의 개인별 성도들의 헌신도보다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왜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헌신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보고를 인용하면서 손봉호 박사는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한국교회는 냉정하게 자기점검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경건훈련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일까?

✲ 엄기홍 목사

현재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가 있다. 홍콩에 가면 도풍산이 있다. 노르웨이 선교사가 불교사원을 사서 불상만 치우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수련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가 도를 닦는 사람들이 많았다.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수도를 하면 마치 도사가 되어 산신을 만나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기독교 신앙수련과 다른 점이 많지만 홍콩적 상황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손귀연 목사(JDM한국대표)



장소영 간사(CCC훈련담당)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적합한 신앙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는 신앙훈련조차도 지나치게 단기적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사훈련, 리더훈련 등은 단기적으로 써먹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일 경우가 많다.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체질화를 훈련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회복과 유지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 양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흥이단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이다. 이단의 발흥은 그만큼 교회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대이단들은 언론과 법률부문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법률적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단문제는 개교회가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언론과 법률부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 장소영 간사

현대는 감성시대이다. 현대인들은 감성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훈련도 감성을 자극하는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많다. 때론 화려하고 때론 요란하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요란한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신앙훈련이 중요하다.** 이것은 매일매일 실천되어지는 개인경건훈련으로만 체질화 될 수 있다.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만 해도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훈련을 추구해야 한다.

✲ 박영주 목사

한국교회의 신앙훈련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교회성장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어가면서 금가루, 금니현상 등의 **가시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다.** '말 전달 놀이'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을 거치다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딴소리가 나오게 된다. 요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앙훈련은 삶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체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신앙훈련은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한 성경공부, 나를 위한 기도생활, 나를 위한 신앙훈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가 중요하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 **신앙훈련의 자리는 바로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이다.** 한국교회가 디도서 1:16절 말씀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 손귀연 목사

한국교회의 신앙훈련 중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활훈련 부분이다. 모든 훈련이 너무 교회중심이다. JDM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KDTI 훈련을 실행하고 있다. 9개월 동안(3월부터 11월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21세기가 필요로 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갈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영성은 결국 생활로 표현되는 생활영성이다.** 훈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인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훈련의 동기가 되어야지 자기 교회에 적합한 좋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정재호 목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훈련, 묵상훈련, 기도훈련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주는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 자체가 영적인 성장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비법전수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시지 않으셨다. 친히 일상생활 중에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을 뿐이며,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맡기셨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을 훈련하고 실천하기를 기도해야 하겠다.

교회건축(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구조물 보수, 보강 전문업체



대표이사 장상용장로
(서울북노회 / 성신교회)



대표이사 이진배장로
(강원노회 / 성광교회)

교회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것
이제 엘리트와 상담하십시오.

한성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주)엘리트산업개발



평양봉수교회



일산승리교회



오창대교회



마천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2-2 (덕원빌딩 2층) T. 02_529_1893~6 F. 02_529_1897
E-mail. elitecd@paran.com homepage. hppt://www.elite-cd.com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60-8 청산빌딩 3층 T. 033_254_5070 F. 033_254_5170
E-mail. ejb5222@hanmail.net H.P. 011_9795_5570

(주)엘리트개발
(주)엘리트공영
(주)엘리트기발공영
(주)엘리트산업개발



이웃과 함께하는 선한 교회

「양의문교회」는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창립 5주년의 신생교회이다. 지난 2004년 7월, 선한 목자와 같은 김향수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웃과 더불어 존재하려고 애써왔다. 2008년 여름에 지금의 위치로 교회를 확장, 이전하고 복음전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양의문교회」(김향수 목사)편입니다

김향수 목사, 부르심을 따라가다

김향수 목사는 춘천 동산면이 고향이다. 화천군 원천리를 거쳐 신앙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일찍 시작하였지만 시대적 환경이 소년 김향수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산에 가서 나무하고, 농사짓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그 시절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그러는 동안 신앙은 멀어져만 갔다. 몇 년의 신앙적 방황기를 거쳐 주님이 다시 김 목사를 부르신 것은 10대 후반.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소년 김향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찾게 된다. 16살부터 어린이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여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17살이 되던 해였지만 막상 신학공부를 시작하려니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의 꿈을 접은 채 춘천 시내의 모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교회를 섬겼다. 40년간을 한결 같이 섬긴 덕에 그 교회에서 장로 장립까지 받았다. 젊은 시절부터 재능이 있어 펼쳤던 가구사업도 많은 소득이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몇 번의 공장 사고를 통해서 김 목사는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김향수 목사가 어린 시절 서원했던 일들을 기억하시며 김 목사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김향수 목사는 아내이기 이전에 신앙의 동지였던 박현정 사모와 오랜 기도 끝에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위기는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김 목사의 결심을 도우셨고 걸길로 가지 않도록 순간순간 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하기에 김 목사가 깊이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은 21장이다.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21:18)고 하셨다. 지금 김 목사의 나이는 환갑을 넘겼다. 목사안수를 받은 것이 5년이 채 되지 않으니 김 목사의 부르심은 호렙산에서 부르신 모세의 부르심에 견줄 만하다.

양의 문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양의문교회」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다. 2008년 여름,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 문제를 놓고 김 목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이 창세기의 야곱에게 나타나사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김 목사의 꿈에 현몽하여 "바벳누"라는 큰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니 "하나님의 문"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예배 말씀시간에 보게 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10:7-9). 그리고 현재의 「양의문교회」 자리가 20일 만에 마련되었다고 한다. 주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양의문교회」는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원하는 교회이다. 「양의문교회」가 꿈꾸는 사역의 주안점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는 사역이다. 이러한 열망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성복순 선생(춘천 한림미술치료센터 소장)을 붙여주시고, 그 외에 여러 사회복지사 지체들, 동역하는 많은 분들을 함께 하게 하셨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 모습으로 핍박하던 이웃 주민들이 이제는 「양의문교회」가 베푸는 선행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더 큰 꿈을 향하여

필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은 날은 마침 오전기도회가 있는 날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수요일에 기도회가 열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모인다. 김 목사의 기도는 야당편이냐 여당편이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뿐이라고 한다.



「양의문교회」는 지금 「사회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장애우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함께 재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꿈이 피어났다.

김 목사는 진심으로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김 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김향수 목사와 박현정 사모, 그리고 「양의문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이 도시는 행복하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 영혼의 양식

늦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1~16)



정득 목사
(정다운감리교회)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지요. '사랑'에 해당하는 한자어(人)를 보면,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함께 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를 '나' 답게 만들어 주고, 자신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사를 재껴 놓고서라도 달려가 그 사람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의 기로에서 아파하는데 어떤 사람이 몇 날을 지체하고서 찾아갈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사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셔야 합니다. 5절 말씀은 더욱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본래부터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은 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즉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틀 후엔 베다니로 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어찌된 영문일까요?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실 의향이 없으십니다. 하도 기가 막혀 제자들이 나섭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이 본래부터 사랑한 사람 나사로가 죽어 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베다니로 가셔야지 왜 이리 지체하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늦어도 한참이나 늦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늦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셨고, 그들 역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4절),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15절) 늦으셨고,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내 삶에 너무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주셔야 하고 역사하셔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습니다. 늦어도 한참이나 늦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일만, 내 삶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비록 한참 늦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늦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고, 예수님이 늦으실 때, 그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사색의 창

"뚝딱 뚝딱, 아름다운 소리"



"뚝딱 뚝딱, 따닥 따다닥"



성석중
해비타트 춘천지회 현장감독
(늘사랑교회 집사)

일년 중 가장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던 지난 여름, 해비타트 건축현장 지붕에서 100여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드리는 아름다운 망치소리다.

모두가 바다로 산으로 떠날 때 황금 같은 휴가를 반납하고 자녀들 친구들, 직장동료들과 함께 이곳으로 모인 사람들. 땀으로 범벅된 옷에 벌겋게 그을린 피부, 그 사이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들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아마추어인 그들의 손에서 지어지는 집이 괜찮을까?'
라는 잘못된 생각이 없어진 지금 나도 그들과 여러 가지의 교감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부의 상징, 투기의 대상으로만 비춰지던 집이 이제는 나눔과 섬김의 장소로, 쉼과 새 힘을 얻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언젠가 유학생 딸과 함께 비쁜 엄마를 대신해 봉사활동을 하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평소에 사회생활에만 전념하며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가 우선이던 아버지는 봉사활동을 통해 딸과의 끊어졌던 대화를 시작하고 딸의 관심사와 유학중의 어려운 일 등을 가슴으로 들으며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회복된 가족관계를 계기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단체로 봉사를 오는 경우 매년 오던 업체가 반복해서 오곤 하는데, 그 이유가 봉사하고 난 후의 회사 분위기가 더욱 좋아진다고 한다.

특히 많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섬김의 리더를 체험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한 해비타트 현장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사회 간접 교류를 통하여 미래를 꿈꾸는 일들도 더욱 많아졌다.

이렇듯 봉사는 빠듯한 시간을 어렵게 내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일 외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얻어간다.

내가 이 망치 소리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 입주민들과 봉사자들에게 늘 넘치기 때문이며, 감사한 마음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나아가 세계와 옅빙가운데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집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손엔 복음을, 한손엔 망치'를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한다.

모든 사람이 안락한 집이 있는 해비타트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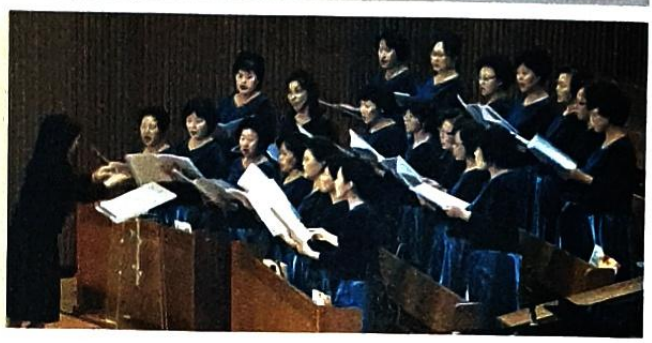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춘천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영혼의 회복과 쉼을 위한 아름다운 찬양단

솔리데오(오직주님!) 사모합창단 김현숙 회장, 박영식 지휘자 편



사모합창단의 배경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중의 하나가 사모의 위치이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의 역할에서 50%이상의 몫을 하는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역자가 사모라는 역할이다. 그래서 사모는 마음 고생과 몸 고생이 여간한 것이 아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모는 힘든 역할인 것은 분명하다. 2007년에 창설된 솔리데오 사모합창단은 이렇게 어디에서도 마음을 터놓기 어려운 사모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나눔의 공간이다. 처음 7명으로 시작된 합창단은 이제는 27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찬양단으로 발전했다. 구성원들은 이상하게도 큰 교회 사모님들은 없고, 작은 교회의 사모님들이 많다. 지역도 홍천, 화천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온다. 연령도 50대가 가장 많고 다양한 연령층을 지니고 있다. 처음 합창단이 시작 된 동기는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성가대가 없거나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양팀에 속해서 찬양하기가 어려운 사모들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모이게 되었다. 사실 사모들에게 숨겨진 재능이 많이 있고 특히, 찬양은 누구보다 좋아하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참에 조양장로교회 박영식 사모(현 지휘자)가 이런 좋은 취지를 춘천시 기독교연합회(당시 연합회장 한균 목사)와 성시신문에 나눈 후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다.

은혜를 나누는 공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음악을 공부했던 박영식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사명을 주셨다. 솔리데오 찬양단의 가장 큰 특징은 남편인 목사님들이 적극 추천하고 후원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초교파적일 뿐 아니라 사모라는 역할에서 얻어지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을 전공한 지휘자를 통해 수준 높은 배움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습공간을 예강교회(정명훈 목사)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인원이 늘어서 춘천은혜교회(지용찬 목사)로 옮겼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30분에 찬양의 공간이 열린다. 그렇다면 오디션은 볼까? 절대 없다. 사모합창단은 은혜로 찬양하는 곳이다. 실력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능하다. 연령제한도 없다.

삶의 간증

2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현숙 사모는 솔리데오 찬양단이 단합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박영식 지휘자와 함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 가고 있다. 특별히, 늦게 50이 다되어 신학을 시작한 남편이 목회를 춘천에서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남편의 사업실패와 이에 따른 남편의 우울증, 그로 인한 이혼의 위기 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혼위기 당시, 고사리 손을 모으고 새벽기도회를 다니며 엄마 아빠가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은 시른아홉이 된 첫째 딸의 기도로 기적과 같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가정이 회복되었다. 그 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의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교회의 중직을 맡아 헌신적으로 감당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헌신을 원하셨다. 결국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다. 남편을 따라 전혀 연고도 없는 춘천으로 내려오면서 목회 순간순간 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은 많지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어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린 남편이 적극 추천해서 사모합창단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모합창단을 통해서 내면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김현숙 사모는 말한다. 사모라는 하나의 공감대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늘 즐겁다.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있다.

사역의 연장들

사모합창단은 첫 번째로 성시합창단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대회'에서 공연을 했다. 그리고 한림성심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열리는 '웰빙 음악회'에서 거의 1년 정도 찬양으로 섬겼다. 또 올해는 춘천 교도소에서 공연을 단독으로 했다.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단다. 박영식 지휘자는 세상의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느끼지 못한 기쁨과 은혜를 사모합창단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사모합창단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전에 강하다는 것이다. 공연하기 위해 무대에만 서면 어디서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오는지 박영식 사모도 놀랄 때가 많다고 덧붙인다. 아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리라.

사모합창단의 작은 꿈

앞으로 사모합창단은 정기적인 단독 공연을 꿈꾸고 있다. 올해 계획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해 아쉽게도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과 찬양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연합 집회나 부흥회든 어디에서라도 부르면 기쁨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있다.

사모합창단은 순수 자비량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춘천교역자연합회와 교경협의회 등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계시다.

지금 사모합창단은 더 많은 사모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령과 실력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어떤 사모라도 환영이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라도 성시신문이나 김현숙 사모(010-5365-1032)에게 연락을 주면 된다. 많은 사람의 위로와 힘이 되는 사모합창단의 귀한 천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해본다.



취재 유병준, 사진 김미경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경히브리어, 헬라어 단기 수강생 모집
원어 성경을 독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일 시 : 매주 월 ~ 금 09:00-15:00까지
* 장 소 : 계성교회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86-4)
* 과 정 : 이,헬 기초 문법부터 원어성경 독해까지
* 대 상 : 1) 일반성도 2) 교역자
* 강 사 : 본연구소 대표 전상기 목사 외
* 수강료 : 일십만원 (교재대 및 점심)
* 접 수 : 수시등록, E mail: chibuml@naver.com
(위 메일로 소속교회, 직분, 성명, H.P. 기재 요)
* 문 의 : 010-9399-1944, 010-8358-3090, 033-441-1110
H&G 원 어 연 구 소


이궁의 그림
(위의 원 안이 '위봉문', 아래의 원 안이 '조양루')
1897년 제작추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춘천의 숨은이야기(1)

춘천에 고종황제의 궁전인 이궁(離宮)이 있었다



김 동 정
관동대 사학과 겸임교수/
강원 도사편 찬실 상임위원/
신성 감리교회 권사

춘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춘천을 성시화(聖市化)하자'는 이야기는 그리 쉽지 않게 들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춘천을 성시(聖市)로 만들기 위하여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랬기에 「춘천성시신문」도 있는 게 아니겠는가? 과연 우리가 성시로 만들려고 하는 춘천이 어떤 도시였는지 잠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춘천이라는 도시의 위상을 안다면 성시화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조금이나마 달라지지 않을까?


도충임에 있는 위봉문


우두산에 있는 조양루

춘천에 살면서 늘 무심코 지나치는 문이 있다. 이 문은 강원도청 앞에 있는 위봉문(威鳳門)인데, 왜 이곳에 있는지 무슨 건물의 문인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이다. 또 우두산에 가도 왠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누각이 있다. 그것은 조양루(朝陽樓)이다. 이 두 건물이 바로 고종황제의 궁전인 이궁의 내삼문(內三門)과 문루(門樓)로 오늘도 그때의 위상을 간직한 채 굳건히 서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종황제의 궁전인 이궁**(離宮, 피난하여 집무를 보는 궁전)**이 이곳 춘천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궁을 세워놓고 고종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춘천에 있어서 이 이궁의 의미는 무엇일까?

춘천은 예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군부대가 있었고 주위에는 오늘도 많은 군부대가 있다. 이는 고대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춘천은 국가체제가 형성되기 전부터 맥국(貊國)의 도읍이라 불리며,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우수(牛首)·수약(首若)·오근내(烏斤乃)·수차약(首次若)·삭주(朔州)·광해(光海)·춘주(春州)·안양(安陽)·수춘(壽春)·봉산(鳳山) 등으로 불리다가 조선 1413년(태종13)에 춘천으로 불렸다. 사면이 높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특이한 분지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삼국시대부터 백제·고구려·신라세력으로부터 군사상의 요충지로서 중시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려와 조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이 계속된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인 성향의 춘천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난을 겪으면서 국가보장지(國家保障地)로 임금과 관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많은 관료들이 제각기 정치적 논리로 국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계책과 그에 따른 지역을 물색하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성호 이익(李瀷)선생은 이옥(李沃)의 말 곧 "중첩한 산이 사방에 둘러싸여 웅호하고 두 강물이 후면에서 합류하였고 가운데에는 비옥한 들판이 열려서 주위가 수백 리에 달한다. 삼면을 막고 지키되 한 사람이 관문을 막고 있으면 만 명도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난공불락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다."는 말을 빌려 춘천만이 국가 보장지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계승한 정약용도 일찍이 춘천을 두 차례 답사하고서 '춘천이야말로 국가 위난의 시기에 국운을 보존할 중차대한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춘천은 국방전략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개항 후 수차례의 변란에 시달린 고종이 피난처를 물색할 때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1955년 도청 뒤에 옮겨진 위봉문


이궁 - 강원도관찰부의 문루였던 조양루 (1905~1910년)

고종의 춘천이궁(離宮) 건립이 본격화 된 것은 나라가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고종 자신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부터이다. 고종은 1888년 4월 춘천에 유수부(留守府)를 설치하여 기전(畿甸)에 편입시키고 춘천유수로 하여금 정기·영서의 7개 군현을 관할하게 하고 이궁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춘천 이궁은 유사시의 변란에 대비하여 피난처를 물색하던 끝에 1888년에 초대 춘천유수 김기석(金箕錫)에게 건립을 명하여 1890년 제2대 춘천유수 민두호(閔斗鎬) 재임시에 완공시킨 것이다. 이 이궁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조 때 건립한 문소각(聞韶閣)을 증축하거나 수리하였다. 문소각은 1646년(인조24)에 춘천부사 엄황(嚴愰)이 건립하였다. 건립한 지 오래되어 1774년(영조20) 중수, 1869년 신축을 거쳐 이궁 건립 시에는 고종의 침전(寢殿)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폭 증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남동향의 전면 5칸 측면 3칸의 웅장한 건물이다. 그러나 이궁은 고종황제가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었다.

이궁의 역할과 의미는 정부의 행정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고종 황제가 한 번도 이용한 적은 없지만 행정개혁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1895년 5월 26일에 반포된 지방제도 개혁으로 8도체제는 23부체제로 개편되어 강원도는 강릉부와 춘천부로 나뉘어져 춘천부는 강원 영서지역을 관할하는 관찰부가 되어 춘천을 비롯하여 평강·회양·금성·양근·지평 등의 지역까지 포함한 13개 군을 거느렸다. 이때 원주가 충주관찰부에 속하자 강원감영은 춘천이궁의 문소각(聞韶閣)으로 옮겨졌다. 1896년 8월 다시 23부체제를 폐지하고 13도체제로 개혁하였을 때, 춘천관찰부는 강원도관찰부로 승격되어 원주·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26개군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때도 춘천이궁이 강원도관찰부로서의 기능을 손색없이 수행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도 춘천에 강원도청이 자연스럽게 설치되었다.

이 이궁의 잔재는 조양루와 위봉문 뿐이다. 조양루는 1908년(융희2) 일본인들이 춘천지방의 구한시대 정신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우두산으로 옮겼으며, 위봉문은 1916년 문소각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조양루 자리에 이전하였다가 1955년 다시 도청 뒤에 이전했으며, 1972년 지금의 자리로 다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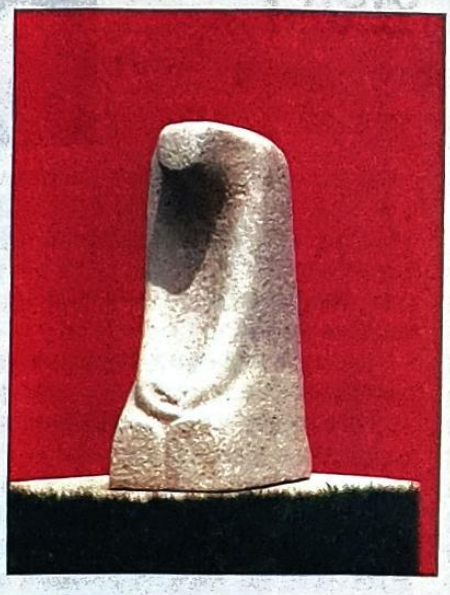
1890년에 완공된 춘천이궁은 별다른 훼손 없이 갑오정장·아관파천·대한제국기를 거쳐 일제 초기에 이르기까지 춘천관찰부(春川觀察府)·강원도관찰부(江原道觀察府)·강원도청(江原道廳)의 청사로 이용되면서 강원도의 정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춘천은 임금이 국난을 당할 때 피난하여 집무로 볼 수 있는 도시로 역사 속에 인식 되었다. 따라서 이궁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首府)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시화 해야 할 이유도 춘천이 국가적으로나 강원도적인 면에서 중요한 도시로 여겨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춘천시민들도 황제의 궁전이 자리잡은 곳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오의석 / 목상 / 화강석 / 95×150×240cm / 2001년

〈작품설명〉

작품속의 인물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끓고 두손을 모은 자세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룹니다. 단순화된 선과 절제는 면의 흐름 안에서 인체의 각 부분은 묵상이란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깊은 고뇌를 작품속에서 읽을 수 있기에 이 작품은 주위를 지나는 이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힘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됨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전 영혼이 호흡하는 시간의 신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이관형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는
비전과 희망이 있어요.
긴 어둠의 나락에서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내일을 향한 삶의 원동력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기쁨이 있어요.

권력과 지위가 아니어도
부귀와 명예가 아니어도
꿈꾸던 현실 환경이 아니어도
쉽사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원동력

베들레헴 마굿간 구석
하늘 영광과 부귀를 버리시고
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신 당신

영광과 부귀가 아니어도
권력과 명예가 아니어도
기쁨과 낭만이 아니어도
그대와 나를 후대하시는
주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은 아니어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또 다른 내일의 생명이 있어요.

-시. 김장기권사(한길교회)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23

흡연은 질병이다



고석연
(가정의학과)



걸어서 세벽기도를 다니다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처음 볼 때는 그냥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하다가도 계속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 대부분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도 운동을 한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이 영적 건강을 위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씁쓸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요즘은 웰빙(Well-being)이란 말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대형 마트에는 유기농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TV도 건강에 대한 프로로 넘쳐난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 또한 다르지 않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아무리 비싼 약도 아무리 비싼 검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보는 진료에서 최고의 치료를 추구하는 것으로 진료 행태가 바뀌고 있다. 어느덧 건강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는 듯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흡연에 있어서 사람들은 참 관대하다.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는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금연 운동은 우리 사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이젠 담배를 끊으세요"이다. 대답은 참 다양한데, "네 끊어야지요."도 있지만 "의사들도 담배 많이 피던데요." "담배 끊으면 낙이 없어요." "담배 피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등 상당한 저항에 부딪힌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조차 금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담배는 과연 기호식품일까? WHO(세계보건기구)는 2003년도에 담배를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건강관련 첫 국제 협약인 담배규제국제조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니고, 흡연을 질병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장마비나 만성폐질환과 같은 여러 다른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흡연은 우리의 느낌처럼 그렇게 온순하지가 않다. 놀랍게도 흡연은 사람의 수명을 8년에서 22년이나 단축시킨다. 침묵의 살인자인 고혈압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이 바로 흡연이다. WHO에서 담배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맺을 만하다.

흡연의 폐해는 흡연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간접흡연 또한 흡연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뿐만 아니라 남 또한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세상에서 담배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흡연이 질병이기 때문이다. 흡연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행동장애이다. 따라서 우리 의지로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없다. 또한 마약과 비슷한 니코틴 중독도 일으킨다. 니코틴은 흡연자들의 불안, 스트레스, 분노, 우울 증상을 개선시킨다. 흡연을 해서 얻게 되는 정신적인 이득이 많으니 그 많은 해악을 알고도 담배를 쉽게 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흡연은 질병이다.

예레미야는 40년간 예루살렘의 죄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 회개하지도 않았다. 예루살렘은 바침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처참하게 멸망하였다. 흡연은 질병이다. 흡연은 더 이상 신학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흡연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뿐더러 생명을 단축시킨다.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연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신앙체험이 나의 신앙체험이 되어야 한다)



요즘 가정문제 중의 하나가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차이'이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그런 세대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도 세대차이로 당연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세대를 넘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할아버지의 체험을 자신의 신앙체험으로 만들었던 유대인목사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한다. 미카엘 목사는 유대인으로 정신과 의사이지만 할아버지의 영향과 하나님의 섭리로 목사가 된 사람이다. 지난 10월 14일에 CCF 주최로 '미카엘목사 초청집회'가 나눔교회에서 있었는데, 그의 간증을 정리하였다.

4개월 전 알렉산더 할아버지가 10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고, 그렇게 내 인생의 중요한 한 장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신 분이시기에 오늘 제 간증은 할아버지의 일대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20세기 초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변호사셨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할아버지는 아내, 외동딸과 함께 바르샤바의 게토(유대인 강제 거주 구역)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할아버지는 폴란드의 한 마을에 정착하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치군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은 옷가방 하나만 챙겨서 다음날 장터로 모이라는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방을 챙기고 계시는데 약국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할아버지를 다음날까지 약국 창고에 숨겨주셨습니다. 다음날 900여명의 유대인은 모두 인근 숲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계속 그 마을에서 사실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천주교 수녀원으로 도망을 가셨는데, 그곳에도 이미 유대인 어른 두 명과 소년 하나가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녀원도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나서는데 수녀님이 금속으로 된 큰 십자가 목걸이를 할아버지 목에 걸어 주시면서 이 십자가가 구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게슈타포(비밀경찰)가 나타났습니다. 한 장교가 할아버지에게 총구를 겨눈 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신 채 두 손만 들어 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본 그들은 "아, 당신은 크리스천이군" 하더니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사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마간 유격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슈타포에게 붙잡혀 감금되셨고 사형집행을 하루 앞두고 계셨습니다. 감방에 홀로 앉아 자신이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은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잠시 후 한 교도관이 오더니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층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엔 교도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고, 할아버지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교도소장이 방을 나가더니 돈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도관에게 그 가방을 전해주면 돈을 받는 대가로 할아버지를 사형대상자 리스트에서 빼고 풀어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세 번째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홀로코스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 군복무를 마친 나는 이스라엘을 떠나 이태리에 가서 의학공부를 하고 정신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독일에 가 계신 할아버지께서 나를 독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친척을 포함해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살인자의 나라 독일에 간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생각에 독일 방문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숙한 호스텔에서 유르겐이라고 하는 독일청년을 만났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고통, 분노, 그리고 독일인들에 대한 원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시 돋친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유르겐은 변함없이 내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자기가 마약중독으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할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즉시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 신약성경을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느 날 유르겐은 나를 예배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어떤 여자 분이 일어서더니 다음과 같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너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내가 너를 네 원수의 나라로 데려온 것은 분노와 원망, 미움으로 가득 찬 굳은 네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네게 메시야인 나를 보여줄 것이고, 나는 네게 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줄 것이다(겔 36:26). 그 후에 너를 네 고향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윽고 나는 나의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이태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가진 지역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주님께서는 내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고통이 시작된 곳에서 내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메시야닉 유대인들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R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목회자로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 고 재 만

예 향

나를 구원하신 기적

신학교 게시판 한 쪽에 누군가가 이런 낙서를 써 놨다고 한다.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고,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아무개 전도사가 졸업시험을 패스한 기적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무개 전도사가 성경졸업시험에 패스한 기적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더 놀라운 기적은 지옥에 가야할 나와 너를 구원하신 기적이다.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jysince93@hanmail.net



노후보장보다는 사후보장을...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버지학교 십칠이(스텝) (서울동부12기수료)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꿈과 희망을 주는 다니엘 선교회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년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린 나이에 죄를 짓고 옥살이를 하는 감옥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소년원은 소년교도소와는 많이 다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소망하며 소년원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돕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다니엘 선교회이다.

다니엘 선교회는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 소재 소년원을 이와 같이 지칭함) 종교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덕준 목사(신북교회)와 선도위원 김진국 목사(시냇가에심은교회), 김중원 목사(서울 온누리교회), 심상팔 목사(세중앙교회), 윤종헌 목사(프랑스선교회), 염동철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윤선애 집사(서울 온누리교회)가 소년원 교정사역을 하면서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초 3월 선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다니엘선교회 사역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10개 반의 5~6명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를 수시로 방문 또는 타 장소에서 만나 상담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들의 아픔을 나눈다. 그리고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실행하는 1일 가정체험과 한 달에 한번 있는 가족면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돕고 있다.

다니엘 선교회 대표 조덕준 목사는 "신촌정보통신학교에는 한 달의 한번 가족면회가 있다. 그런데 절반가량의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족,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저희 다니엘 선교회에서 대신 면회를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힘써 준다면 고아원과 소년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매해 여름과 겨울, 성경학교와 특별위문찬양예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신앙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꿈이 있는 쉼터

2008년 김진국 목사가 출소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 3~4명을 모아 함께 생활하면서 꿈이 있는 쉼터를 만들었으나, 쉼터 장소를 잃고 현재는 2명의 청소년들이 교회와 같은 건물 원룸에 기거하고 있다. 앞으로 쉼터 장소의 문제가 절실하다고 한다.

김진국 목사는 "소년원에서 나올 때 입을 옷가지, 신발 하나 변변치 못한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막상 나왔지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갈 곳도 없는 막막한 학생들이 있다. 현재 춘천에는 청소년쉼터가 2곳이 있지만 3개월 이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꿈이 있는 쉼터가 이들을 장기간 돌보고 기독교 정신으로 훈련하여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쉼터가 되기를 소망한다. 따라서 쉼터 건물과 이를 도울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춘천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다니엘 선교회는 꿈이 있는 쉼터가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검정고시 준비와 적성에 맞는 교육, 그리고 신앙훈련을 통하여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어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다니엘 선교회는 소년원과 쉼터 사역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기독 교사들과 춘천의 동역자들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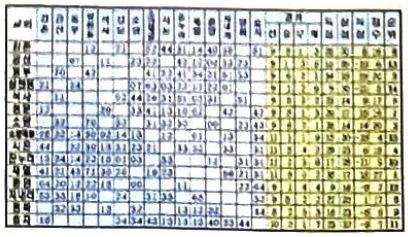
다니엘 선교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56 신북교회 내
☎ 242-2254, 242-8854
다니엘 선교회장 조덕준 목사 011-9062-0415,
꿈이 있는 쉼터 담당 김진국 목사 010-3380-8472

[지료제공. 다니엘 선교회 / 글정리. 편집부]

【 춘천미션리그 10월 경기결과 】

2009. 10. 27 현재



【춘천미션리그 11월 대진표】

팀명		11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A	20	시는 : 금산	논누리해밀	소양:직대리	류부 : 강촌	
	21	백일 : 온의	부식 : 류부	실천류:금산	소양 : 백일	직대리:해밀
	22	소양 : 류부	시는 : 의하	부식 : 강촌	실천류:의하	강촌 : 금산
B	20	효자:실천류	소양 : 강촌	보문 : 의하	부식:직대리	류부 : 보문
	21	소양해밀:의하	보문 : 금산	효자 : 류부	보문 : 온의	소양해밀:논누리
	22	논누리:직대리	소양해밀:온의	시는 : 온의	효자 : 금산	실천류:부식

'09년 춘천미션리그 (주최: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

- 기 간: 2009. 8월 ~12월 (18주)
- 일 시: 매주 월요일 20:00~24:00
- 장 소: 공지천 축구장(2면)
- 방 법: 15개 교회 풀리그(105경기)







북경 구일 외국어 학교는
중국의 수도 북경의 국제공항에 인접한 순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중국 유학을 돕는
한국 유학생 전문학교이다.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중국과 상대할
21세기 중국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북경구일외국어학교
BEIJING GUIL FOREIGN LANGUAGE SCHOOL

가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9>

파이어푸르프 (Fireproof) - 사랑의 도전



어느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배너에 기독영화제가 눈에 띄어 클릭을 했더니 〈파이어프루프〉라는 이 영화가 한 눈에 들어왔다. 포스터를 보니 론 하워드 감독의 유명한 〈분노의 역류〉 같이 소방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어 그들의 활약이 기독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금 의아했다. 작년에 기독교 영화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에피파니 상까지 수상하였다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필자는 여러 일로 이 영화의 관람을 미루었다가 어느 주말에야 보게 되었다. 지난달(9월 17일) 제7회 서울기독교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고 한다.

참으로 주님은 오묘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렇다. 이 영화는 은혜였던 것이다. 단순한 헐리우드의 멜로드라마도 아니고 재난활극영화도 아니나 그 여러 요소가 적절히 아름답게 잘 배치된 진정 보석 같은 작품이었다.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연기는 진지하고 자연스러웠으며 이야기의 전개는 몰입도가 강하게 흘러갔다. 더도 말고 온전한 기독교 영화인 것이다.

'fireproof' 는 방화의, 불연성의, 내화성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혼한 지 7년이 된 젊은 소방원과 그의 아내... 그들은 성격 차이로 인해 감정과 의견이 부딪히고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주인공 케일럽은 소방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인정을 받으나 집에만 오면 아내와의 제대로 된 소통도 단절된 채 지내와서 거의 폭발 직전이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케일럽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도전(The Love Dare)이라는 책을 보내어 40일간 하루 한 가지씩 딕목을 실천하도록 권면한다. 신앙심이 없는 케일럽은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미 그 벽이 단단히 굳은 부부 사이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변화의 과정은 참 고통스럽고 신비하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도 많이 작용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침 필자는 최근 후배와 제자들에게 상처받은 일을 겪어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가 무엇인지 확연히 보이는 것이었다. 감동의 눈물과 함께 받은 은혜는 참으로 귀하고 귀하였다.

지난번에 소개한 〈바베트의 만찬〉, 〈라스트 신 이터〉 등을 잇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알렉스 켄드릭' 이라는 무명의 감독이 케일럽 홈트 역을 맡은 '커크 카메론' 과 그 아내 캐서린 역의 '에린 비데아' 를 출연시켜 만든 2008년 작이다. 소위 저예산 영화로 분류되는데 개봉당시 주말박스오피스 랭킹 4위에 오르며 기독교계는 물론 비기독인들에게도 폭넓은 찬탄을 받은 수작(秀作)이다. 동 감독이 그 전에 〈페이싱 더 자이언츠 (Facing The Giants)〉라는 미식축구를 소재로 한 기독영화를 만들었다는데 그 때도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한다. 속히 찾아서 보고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한다. 〈상영시간 118분〉





편집위원 김 춘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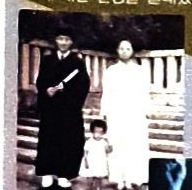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증보기도]

민족복음화의 불꽃, 고 김준곤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와 성시화운동 총재인 김준곤 목사가 향년 85세의 일기로 9월 29일 오전 11시 11분경에 소천했다. 김준곤 목사는 1953년 조선대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1948년 7월 9일 남신장로회신학교(교장 박형룡 박사) 제1회 졸업을 하였다. 1951년 목사안수를 받은 후 58년 동안 사역했다. 뜨거운 믿음과 민족 구령의 열정으로 대학생 선교에 뛰어들었으며 1958년 한국대학생선교회를 창설,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1972년에는 춘천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든다는 성시화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인천과 광주 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해외 한인 거주 지역까지 성시화운동을 확장하며 선교사역에 매진해왔다. 김준곤 목사는 주님 품으로 갔지만 그의 삶과 사역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다. 청년 · 대학생 선교와 한국교회 부흥, 민족복음화운동 등 그가 남긴 커다란 족적 일고도 검소하고 소탈한 그의 인간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21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어왔던 그의 삶과 사역이 오늘 한국교회를 떠안고 있는 목회자와 기독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① 1948. 7. 9.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식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기념



② 전도사 시절



③ 84 세계기도성회

④ 엑스플로 85대회



⑤ 춘천성시화 집회



⑥ 영원한 청년 고 김준곤목사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좌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0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명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랑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양의문교회	예당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항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우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춘천홀리클럽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강선희	강옥자	강진륙	강태광
고순덕	고순자	김관수	김기태
김태숙	김라현	김영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봉재	김성국	김신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정혜
김춘은	김춘익	김춘찬	김주환
김진성	김현미	김현배	김현청
김희경	남상구	류재명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인관	박정애	박제지	박춘근
박필성	박형숙	배진철	변춘지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지
오의석	오홍수	원희정	유김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지	윤예지	윤태호
윤홍묵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영순	이우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길	이수황
이순자	이영진	이은수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청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임새철
임창수	정기남	정기영	정덕례
정선정	정소영	정소희	정요한
정주현	정정순	진영목	청규시
정미경	정은희	정재균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영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청지
지경희	차경지	최계화	최병숙
최상호	최영순	최을옹	최예석
최충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이	한순수	한희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언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황덕기	황명찬
황은주	황칭섭	김영래	

부대찌개 전문점
※ 포장가능
봄내부대찌개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0년 전통의 부대찌개!! since 1978

스테이크(예약주문), 샘 구이
대표 이장원 김혜정
■ 예약문의: 261-8029
■ 체인점문의: 010-6601-4003
■ 위치: 국립춘천박물관 가기 전 오른편으로 500m
http://cafe.daum.net/boodaeggigae

비과세로 더 높게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Happy Bank
정기적금 4.8%~5.5%
과세환산금리 5.5%~6.4%
정기예금 4.5%~4.8%
과세환산금리 5.2%~6.4%
자유입출 0.5%~3.5%
* 예금보장은 1인당 5천만원 *
◆ 국가유공자, 장애인(3급이상), 육영사업자, 75세이상 고령자 금리우대
[문의전화]
운교본점 255-1007
강남지점 261-100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오 승 룡 목사
(춘천성결교회)

며칠 전 전국에서 찾아온 장로님들과 소양댐 통나무집에서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은 후 보트를 타고서 청평사 단풍구경에 나섰다. 보트에서 내려 청평사에 오르는 길에 산들은 고운 붉은색 단풍으로 채색 되어 있었다. 내 눈에 들어온 숲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가을바람에 춤을 추고 있다. 복잡한 시내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취했다. 정말로 오랜 기다림 속에 멋을 발하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가 아닌가?

아름답게 채색된 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조물주의 아름다운 솜씨에 탄복을 아니 할 수 없었다. 아무리 유명한 미술가의 솜씨라고 해도 조물주의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천연의 작품은 인간이 만든 인조작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 대자연 속에 숨 쉬는 하나님의 손길, 인간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색상들을 보면서 거듭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자란 나는 가을의 아름다운 산을 기억하고 있다. 풍성한 가을의 열매도 기억하고 있다. 머루와 다래 그리고 각종 버섯들, 산짐승들의 식량이 되는 도토리와 알밤 등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그런 낭만도 사라지고 목회의 현장에서 지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병든 몸을 지탱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삶의 현장을 적응하여 보려는 나에게 가을산은 풍성한 감성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였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영성도 회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단풍으로 채색된 숲을 바라보면서 감격했던 나는 그 숲에서 큰 진리를 발견하였다. 단풍으로 채색된 숲은 기다림의 결과였다. 기다리면 멋이 남는다. 나도 목회의 현장에서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러나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분명히 인생을 멋있고, 맛있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자연은 조급하지 않다. 자연은 기다린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사와 장로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맡겨진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격려하며 다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며 노력하는 목사와 장로가 아닐까. 자연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선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가식의 가운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차림으로 자연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하지 아니하는가? 이 가을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한다.

지난호 허대영 교육장님의 칼럼 제목이 잘못 나감을 사과드리며 정정제목으로 '우리모두 노란손수건을 답시다' 임을 알려드립니다.

알 려 드 려 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전도 교사 주간 강습회
일시: 춘천 · 화천 9. 7~11.23 매주 월, 오전반10시 저녁반7시
장소: 춘천지회 사무실
전도자료 : 다윗 시리즈 5만원(전도자에게만 원가 한정판매)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학원복음화를 위한 청소년기도모임 "마가의 다락방"
일시: 11.14(토) 오전10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기도실
2)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11.21(토) 오후6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3) 고3 영성훈련 모집
일시: 2010. 1. 4 ~ 29 모집기간: 11월부터 선착순 40명
문의: 244-5400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clove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CCC 전국간사모임
일시: 11.10(화) ~ 11(수) 장소: 국립청소년수련원
2) 친구초청전도집회 : 11.12(목)
3) 부모초청효도잔치 : 11.14(토)
4) 순예술제 : 11.20(금)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강원 춘천지역 선교단체 간사모임
일시: 11. 11(수) 오전11시 장소: 춘천 IVF회관
2) 제자학교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춘천 IVF회관
문의: 252-5200

◆ JDM
1) 고 3을 위한 찬양집회
일시: 11.26(목) 오후7시 장소: 춘천동부교회
문의: 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선교회
1) GBT 선교학교 수료식
일시: 11.23(월) 저녁7:30 장소: 에덴교회(춘천지부 사무실)
2) 세계 성경번역 기도의 날
일시: 11.11(수) 장소: 서울동도교회
3) 정기이사회모임
일시: 11.21(토) 오전7시 장소: 에덴교회
4) 지선학정기회 & 리더십세미나
일시: 11.24(화) ~ 26(목) 장소: 송탄제일교회 안성수양관
강사: 김형준 선교사(GBT선교사)
문의: 이선희 간사 010-9244-9094, chuncheon@v2025.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다윗의 장막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월드미션 예배
일시: 11. 2(월) 오후7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장소: 춘천광염교회(애막골 진흥APT상가 맞은편)
지부: 033) 262-1040 E-mail: interpcc@empal.com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 ~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단사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톤갈비 4층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 미라클아카데미 (성악발성, 피아노반주)
대상: 목회자 사모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일반성도
장소: 효신선교회(춘천KBS신사옥 맞은편, 온의동)
문의: 019-763-8868 다음카페 : 미라클하모니
• 교회성가대 클리닉(찬양발성 · 지휘 · 반주) 방문해 도와드립니다.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문의: 019-9138-4452, 251-4452 남부제일교회 송항순 장로

◆ 춘천요양보호사인합회망육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요양등급판정 안내
문의: 011-9731-0259 (사회복지사 신미정)

◆ English Worship 영어예배
일시: 매주 주일 오후2: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켓세미네성전
문의: 최은순 선교사 010-7123-8265

◆ 다니엘선교회-춘천노년원 교사모집
모집대상: 소년원 친구들에게 비전이 있으신 분
봉사내용: 그룹성경공부인도(주 1회 이상)
봉사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2시-4시 / 매주 주일 오후2시-3시
문의: 신북장로교회 조덕준 목사 011-9062-0415

◆ 크리스천 기타교실 개강
• 초급반 20명 / 중급반 15명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안디옥교회 구성전(남춘천역 옆)
운영: 3개월 코스(S/Ar) 6만원, 선교: 일반시민 무료
문의: 뉴랜드음악선교원 010-6654-8280

◆ 2010춘천레크홍회 성공개최 기원 CBS가을음악회
일시: 11. 3(화) 오후7:3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 2009 춘천기독교연합회 총회
일시: 11. 11(수) 오전11시 장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 11월 성시화 연합중보기도회(CCPN)
일시: 11. 6(금) 오후1시, 유스아트홀(중앙로 유영호치과3층)
주관: 베드로선교센터 주제: 춘천성시화와 선교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춘천장로교연합회 명패 붙이기 운동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합시다!

춘천장로교연합회에서는

춘천지역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춘천장로교회원교회의 명패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교단 및 교회(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010-2061-2161(장로교연합회 총무 김원중목사)**

※ 춘천장로교연합 교회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 방문 요양센터(기관)

센터장/남부제일감리교회 **송 항 순 장로**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과 65세 미만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원하시는 분
◆ 서비스 : - 등급판정 안내
- 요양사(1급)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 세수 · 목욕 · 배변처리 · 식사 · 세탁 · 청소 · 산책 · 병원진료 동행

☎ 상담문의 033)251-4452, 019-9138-4452 (남부로터리 대원당 옆)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0월 사무국 예배가 23일(금)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이병철 목사(주향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행11:19~26)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당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때에 장벽을 넘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교회를 세운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소수이고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장벽을 무너뜨리고 돌파구를 내시며 분명 성시화를 이루실 것이다"라며 "낙심치 말고 늘 초심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자"고 격려하였다. 이어 기독교 기관들의 총회준비와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 교역자연합회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교역자연합회(회장 지용찬 목사)는 춘천광염교회(박인관 목사)에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수부흥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백석대신학부총장 김진섭 박사는 '춘천의 성시화 가능성과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목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서 "이러한 목회를 위해서는 역대하 7:14절 말씀처럼, 목회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며, "특히 요즘 인성이 사라져 지탄을 받는 목회자들은 쉐마신학과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에게서 말씀과 기도와 인성을 깊이 배워야 한다"고 도전하였다.

■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회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CCPN) 정기기도회가 10월 9일(금) 오후1시 유스아트홀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춘천성시화 초대본부장을 역임한 조남진 장로는 "김준곤 목사님과의 만남과 성시화운동의 전개과정을 소개하면서 성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성시화의 발상지인 춘천이 성시화가 활발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다음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 청년, 캠퍼스사역'과 '바른 기독문화와 선교', '춘천 성시화' 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2007년부터 매년 추석마다 유학생들을 위한 잔치를 개최해 온 바나바교회(유병준 전도사)는 올해도 10월 2일(토) 고향에 갈 수 없는 유학생들을 위한 추석잔치를 열었다. 이날 전통놀이 체험과 한국 명절음식만들기대회, 노래자랑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하여 낯선 이국땅에서 추석을 보내야하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의 큰 별 김준곤 목사 별세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평생을 헌신했던 한국CCC창설자 고 김준곤 목사 장례예배가 10월 2일(금) 오전9시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국기독교회장으로 엄수됐다. 이어 오후2시 성시화의 동역자들과 CCC제자들의 애도 속에서 성시화의 고장 춘천 경춘공원묘원에 안장됐다.

인천국제성시축전 열려



2009인천국제성시축전이 10월 6일(화) 오후7시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각 지역 성시화운동 관계자들과 인천지역 성도들과 목회자들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날 성시화의 발상지인 춘천성시화 관계자들이 초청을 받아 조영춘 부본부장과 정재호 사무총장, 이학규 춘천홀리클럽회장을 비롯한 홈리클럽 회원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삼열 목사)와 성시화운동(대표본부장 전용태 장로)이 공동주최로 열린 성시축전은 '행복한 시만,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기독교 축제로서만이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효행상, 선행상, 다산상 등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상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춘천장로교연합 부흥성회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 김종익 목사)는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여 10월 25일(주일) 오후7시 춘천제일교회(박상호 목사)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27일(화)까지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김명혁 목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강변교회 원로목사)는 3일 동안 '신앙의 스승들과 듣는 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험심과 담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슬픔과 아픔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로 "신앙의 스승들인 이성봉 손양원 한경직 주기철 김치선 목사 등의 희생을 기억하며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명혁 목사는 오늘날 세상 가치관과 혼합되어 성공과 특별한 은사만을 사모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믿음과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다.

■ 봄내호스피스 병원 건립을 위한 바자회



봄내호스피스 병원 건립을 위한 바자회가 지난 10월 10일(토) 소양제일교회 앞마당에서 열렸다.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 등으로 꾸며진 이날 바자회에는 소양제일교회 성도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위 아파트 주민들까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봄내호스피스는 춘천 근교에 부지를 구입하였으며, 이제 병원을 건립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을 섬기려 한다.

■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루터〉 영화 상영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종교개혁주일을 기념하여 10월 15일(목) 오후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기독영화 〈루터〉를 상영하였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일대기를 다룬 〈루터〉는 십자군 전쟁, 면죄부 등으로 부패가 극에 달한 로마 천주교에 맞서 투쟁하던 루터의 모습을 충실하게 영상에 담았다.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 루터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 춘천 청소년 동아리 축제



2009년 춘천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춘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10월 17일(토) 오후2시 삼천동 청소년 푸른쉼터에서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19개 청소년동아리의 전시 및 공연으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 200여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하였다.

■ 월드비전 후원감사의 밤



월드비전 강원지부(지부장: 박재호)에서는 월드비전 횡성지회 주관으로 10월 20일(화) '횡성군 후원감사의 밤'을 향교웨딩홀에서 진행하였다. 이날 횡성관내 거주하는 월드비전 후원자 및 각 기관 단체장 150여명이 모였으며, 특별히 한인수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참석하여, 지구촌 굶주리는 이웃들의 실상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춘천YMCA '우리동네 도서관' 개관



춘천YMCA가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우리 동네 도서관 제1호가 지난 10월 24일(토) 오전11시 춘천시 요선동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에 문을 열었다. 춘천YMCA는 도서를 기증받고 빈 아파트 창고를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장서 1천500권을 갖춘 도서관을 마련하게 됐다.

2009년 말씀과 성령집회

◆ 성령치유집회

일시 / 2009년 11월 29일(주일) 저녁 7시



■ 강사 : 강 태 원 목사

- 성서중앙교회 담임목사
- PBM(바울성서세계선교회)대표
- 고려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
- 리버티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 P.I.U 교육학박사
- 여의도순복음교회 부교역자



◆ 말씀집회

일시 / 2009년 11월 30일(월) 저녁 7시

~ 12월 2일(수) 저녁 7시

■ 강사 : 조 재 진 목사

- 용두동교회 담임목사
- 웨슬리전도학교 교장

◆ 장소 / 평화교회 새성전(후평동 중점)

◆ 주최 / 춘천북지방 선교부

춘천드림교회 창립예배

ACTS 29

"선교행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2009. 11. 13 (금) PM 6:30 춘천드림교회



1부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Festival

2부 Vision 선포

담임목사 고 성 언

순복음강원신학교
아웨신학교 신학연구원 졸업 (M.Div.)
아웨신학교 성경대학원 과정 (Th.M.)
화흠(중국)선교회 회장
아웨공동체 기획팀장
아웨신학교 기획처장
춘천드림교회 담임

춘천시 근화동 747-1 Tel. 033) 251-3955 H.P 010-3088-5079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드림교회 CHUN CHEON DREAM CHURCH